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관 총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감리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보혈의 복음으로 거듭나라!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

다음 주일(12월 3일), 2007년 제1차 CMTC 훈련

1000여 팀, 9500여 명! 지난 9년간 진행될 단기선교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갔었던 곳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도, 전도하기에 적절한 기후와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교지의 영혼들은 어렵게 찾아온 우리를 반겨주기는커녕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해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0여 명이 넘는 복음의 증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창 32:10). 이 어찌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2월 교회 일정

- | | |
|-------------------------------|------------------------------|
| 3일(주) 2007년 제1차 CMTC 훈련(1) | 21일(목) 성탄 축하 찬양의 밤(떡갈기, 갈렐) |
| 6일(수) 정기당회(소요 2부 예배 후) | 22일(금) 메시야 연합 찬양(금요집회 시) |
| 10일(주) 2007년 제1차 CMTC 훈련(2) | 24일(일) 제6차 한민 세례식(찬양 예배 시) |
| 13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소요 1부 예배 후) | 공동의의(찬양 예배 후) |
| 17일(주) 특별제직의(찬양 예배 후) | 25일(월) 성탄절 감사 예배(오전 9시, 11시) |

2007년도 제1차 CMTC 훈련 (교육과정:2주간 장소:갈릴리움)

시 간	12월 3일(다중 주일)	12월 10일(주일)
18:10~18:40	제1강 다중행전의 선교	제3강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18:40~19:10	제2강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병행	제4강 2006년도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집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다.

안 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장소이다(왕상 9:3). 성전이야말로 가장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과 가장 낮은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곳이다.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믿음의 반석은 기어 가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성서학의 근본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차츰 성전에 있는 보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여 금기가 자신들을 위하여 이 보화를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 성전의 기쁨을 끌어내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왕하 18:15,16).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추방을 당한 후에 마치 성전 재건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방파제로 변하였다. 따라서 이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보내는 곳이 되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20여 년 전에 헤롯 왕은 교활한 정치적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면 자들의 마음이 헤롯에게 돌아와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성전이 바로 여선지자 안나와 있었던 곳이다. 시몬처럼 안나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요, 이방을 비추는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84년간을 과부로 지낸 여인이다(눅 2:36,37). 그녀의 일생은 그 누구도 흠모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성전에 초소를 정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나의 삶, 그러나 그녀의 오랜 삶 속에는 놀라운 정절들이 있다.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녀의 삶의 목적은 사랑의 이야기다. 그녀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가치, 놀라운 소망이 있다. 누가는 그녀의 남편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 바누엘 아셀 지파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준다.

아셀은 아담의 여덟째 아들이었다. 아담은 열두 아들에게 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였다(창 49:1,20).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에 아셀 지파를 향해 축복한다(신 33:24). 광야에서 40년간 살던 아들에게 기쁨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이 은총의 말씀은 그들에게 새 땅에서 풍성한 기쁨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며 놀라운 소망을 주었다. 그것은 왕의 위임직에 사용되는 기쁨과 같이 좋은 품질로 유명한 기쁨이었다. 이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성전에 있다. 아셀의 복, 이 기쁨은 안나를 위하여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나는 이 땅에 오신 왕에게 영적인 사랑의 기쁨을 부어드리려고 성전에 들어왔다. 왕께 부디

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녀는 시몬의 찬양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자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야가 오셨음을 증거하였다(눅 2:28~32).

우리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면에서 사랑을 알고 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하여 전해지는 사랑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을 때에 또 다른 경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사랑을 넘어서 기다리는 사랑도 배워야 한다. 안나는 이러한 사랑의 소유자였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와 아이들의 소리를 다 참조도 한 남자의 소리보다도 못한 것이 그 당시 유대 여인들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었단까! 물론 안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공공 무여 있었다.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 사슬로 매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나처럼 일시적이었던 어떤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주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슬을 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방의 빛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 분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두 팔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십자가 위에서 활짝 펴져 못에 박혔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속박하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가듯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도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려 나올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안나는 우리에게 어서 예수님 품 안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안으시도록 네 자신을 내어 놓으라고 외친다(마 11:28). 바로 그 때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나 조화가 있을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 자로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요 3:16).

참으로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내어줄이 마땅하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들도 멸망하는 자들을 구해 내야 한다. 이 일을 안나가 하였다. 어떤 아기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녀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 육신으로 오신 진리라고 증거하였다(눅 2:38). 5분을 기다리기도 힘들어 하는 우리들에게, 평생을 기다릴 속에 살았던 안나의 신실함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기다리게 한다. 아멘.

AN ANGEL APPEARED TO MARY

(26) Now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in Galilee, called Nazareth, (27)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descendants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28) And coming in, he said to her, "Greetings,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 (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38) And Mary said, "Behold, the bondservant of the Lord;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 (Luke 1:26~38)

The biblical story of an angel appearing to Mary is amazing. It is a Christmas miracle. The Israelites lived with and by the word of God; they are His chosen people, but after Malachi, their Bible ended. They experienced a lengthy period of quiet time, where no prophets or prophecy occurred until Matthew. Then, all of a sudden, an angel appeared to Mary. Heaven opened and an angel came down to earth. Christmas started! God's salvation plan happened. "Now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in Galilee called Nazareth,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descendants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vv. 26&27). Without warning, an angel sent from God came to a humble and lowly woman and delivered the greatest message this earth has ever received. No one could have imagined such an astonishing event. Four hundred years had passed without any angels or any sign from God. Out of the blue, Mary received the good news. She discovered incredible information.

Mary found out that God's salvation plan is eternal. The angel told her,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v. 33). She listened to the angel and believed. Her belief opened her eyes to God's secrets. Of course, Mary had many dreams and plans of her own. She was about to get married, and was probably thinking about her life as a new wife and hoping for her own children and their well being, but suddenly Gabriel appeared with a surprising message. He told her, "Greetings,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v. 28). She had found preference with God. Gabriel said,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vv. 30 & 31). She was going to conceive before marriage, and her son was going to be the most celebrated and distinguished of all,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v. 32). Everything God was telling her was going to be on a forever basis. What is going on right now with your dreams and hopes? Are they centered on temporary or eternal

values? As a child of God, you need to be careful and cautious that your plans are built on the foundation of Christ, not the world. Mary discovered God's eternal plan.

Mary found out that God's promises are unfailing. As an Israelite, she was familiar with the story about the Messiah. All Israel was waiting for the Promised Messiah. They knew that the ruler of David's throne must come through a virgin,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Isa. 7:14). Even though centuries have passed without fulfillment, now Gabriel appears to tell her that He will come through her. What a moment! Mary discovered that God's promises are certain.

Mary found out that God's power is unlimited. She asked Gabriel, "How can this be, since I am a virgin?" (v. 34) Gabriel assured her,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v. 37). Mary was confused, but Gabriel explained to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for that reason the holy Child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v. 35). He also revealed, "And behold, even your relative Elizabeth has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called barren is now in her sixth month" (v. 36). Mary discovered that God's power is infinite and immeasurable.

My dear friend, to know tha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s the best news for our troubled times. What a faith builder for prayer! Are you losing faith in today's world? Everything Mary found out is the exact same information as the Gospel. God's salvation plan is forever, and His promises are unfailing. Even though the devil killed Jesus Christ on the cross, there is resurrection. God's power is unlimited. Do you believe it? It means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will be saved, and become a new creature. Jesus is our Savior, our Messiah. Please do not delay in receiving Him. Trust Him for everything. He will take care of today's, tomorrow's, and all future troubles. There is no one like Him, and there will never be anyone other than Him to lead you to heaven. Amen. 🙏

다들 주일 설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26~38)



김성관 목사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성경 말씀은 언제 들어도 경이롭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들의 성경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26, 27절). 전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비천하고 낮은 한 여인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4백 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간을 깨고 마리아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33절). 그녀는 천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게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도 자신만의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곧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자신의 아이들과 보낼 안락한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28절).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30, 31절). 그녀가 혼인 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장차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큰 자라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32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계획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 위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처녀에게서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수세기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이제 그녀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34절) 가브리엘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37절).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35절). 천사는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36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 위에 믿음을 건축하는 용사들이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마리아가 깨달은 모든 것은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부활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결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다른 것(살전 4:13~18)

우리는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속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적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복음의 도구가 되어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로 부흥하였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죽음, 종말, 재림의 문제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영원의 문제를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다. 이같은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살펴보자. 우리는 세상에 매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차지 않은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차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자. 다른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는 너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4:13).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된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웃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죽음 때문이다.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노력, 공로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그 종말이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요 11:35).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히 1:21~23).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 환난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오직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였다(살전 5:16~18).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자(고후 5:2).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는 자라리 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후 5:8).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할 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살전 4:17). 이보다 더 큰 기쁨, 소망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향한 참 소망으로 넘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부활을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14).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고 말하셨다.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소망으로 넘치게 된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바울은 찬송하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기적은 감옥의 간수에게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행 16:30)라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의, 공로와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 5:12,13).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눅 16:19~31)의 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요 5:29).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주님의 강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참 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전 15:51). 강림하신 주님은 우리들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계 20:13). 오직 주님의 생명령에 기록된 자만이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에 거할 수 있다(계 21:27).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에 세상과 다르다. 이제 곧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처소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다른 길,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의와 공로,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대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생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이다(계 5:8).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이라면 진실로 기뻐하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세면'(찬 434장).

교회력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력
(教會曆, Church Calendar)

3. 공현절 (Epiphany, 公顯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공현절은 1월 6일부터 약 8주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1월 6일에 시작하여 성회 수요일까지 지킨다.
4. 성회 수요일 (Ash Wednesday) 사순절의 첫번째 날로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준비일로 이 날 참회자의 머리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했다(*2007년 2월 21일).
5. 사순절 (Lent, 四旬節)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5주간 계속된다. 이 때에는 교회의 금식 기도를 설정하여 회개와 함께 깨끗한 분위가 속으로 부활절을 준비한다. 대림절이 성탄절의 준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성회 수요일에서 부활 주일 전 날까지 40일간을 지킨다.
6. 수난 주간 (Passion Week) 부활 주일 전 일주일 간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위한 기간이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으로 종려 주일에서 부활절까지의 기간이다.
7. 성 금요일 (Good Friday, 聖 金曜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념하여 해마다 수난 주간 중에 이 날을 금식한다. 이 날에는 금식과 참회를 하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한다.
8. 부활절 (Easter Day, 復活節) 부활의 아침부터 약 50일간 계속되는 절기이다. 교회력

은 매년마다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뜨는 날 다음 주를 부활 주일로 정하고 있다(*2007년 4월 8일). 이 날은 모든 사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와 약속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부활 주일에 시작해서 일곱 주일을 포함한 50일간 지킨다.

9. 오순절 (Pentecost, 五旬節) 삼위 일체 주일을 비롯하여 시작되는 이 절기는 대림절 첫 주일까지 계속되는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긴 절기이다. 한때에 와서는 교회력의 전반부를 차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수난, 부활, 승천을 강조하였다.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를 성도들이 실생활을 통해 체험하도록 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기간이다. 부활 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한다.
10. 성령 강림절 (Whitsun tide)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다. 부활절로부터 50일째, 성령강림절 10일째에 해당하는 주일에 시작되어 한 주일간을 지킨다(*2007년 5월 27일).
11. 삼위일체 주일 (Trinity Sunday) 성령 강림으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이다. 성령 강림일 다음 주일 이후부터 대림절까지를 삼위일체절(Trinity Season)이라고 한다. 교회력의 절반을 마치면서 후반을 시작하는 절기이다(*2007년 6월 3일).

교회력은 교회의 전통만을 내세운 예식이 아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세밀하게 기념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다. 이제 다음 주일(12월 3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된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성탄 찬송과 메시지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차, 이 기쁨과 소망으로 베풀려했 말로우니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니라"(눅 2:14).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24)**



이 훈 (장로, 예배위원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요 4:24). 주님을 향한 예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나아가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특별히 2007년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때에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예배로 하나 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는 신령한 예배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라”(시 100:2).

신령한 예배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이나 부잣집의 큰 방에서 나지 않으셨고, 베들레헴 시골의 보잘것없는 마굿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교만과 외식을 책망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피를 대속해 주시려는 구원

의 위대한 증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령한 예배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히 9:14).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신령한 예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신령한 예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결국 신령한 예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영적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가득한 신령한 예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참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장막의 예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총이 예배를 온전하게 합니다(히 9:10).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십자가 보혈로 가득한 예배에는 회개가 있습니다(행 8:22). 모든 외식과 교만을 깨뜨리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벧전 2:1). 생애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기 헌신이 있습니다(마 16:24). 그리고 오직 보혈의 복음을 땅 끝 열방에 전하고픈 뜨거운 심령이 있습니다(행 1:8). 신령한 예배에는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바뀐 참 예배자

2007년!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우리의 오랜 신앙 연수와 예배 지식이 있다고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참 십자가 신령한 예배자입니다. 신령한 예배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또한 매주일과 주중 예배와 집회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도 신령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같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예배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섬기는 마음이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 예배 때마다 성심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참 예배자로 가득한 충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저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저 대신 죽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
도 태어나게 해 주시고 엄마, 아빠 주신
것 감사해요. 형, 누나 만들어 주시고
같이 놀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찬
양대 하고 찬송가 많이 부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친구들(지우, 은찬, 민
지, 현석, 종성...)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
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도
감사해요.

김준수(유치부)

그 기쁨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 3:11). 언제부터인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
게 되었다. '믿음으로'를 작아 보이고 실수투성이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나
를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셨다. 그래서 그저 나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다. 그분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언제나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
기에 '회개' 뿐이었다.

이제는 내 안에 보혈로 정함을 받아 십자가에 담긴 참 사람을 깨닫고 죄에서의 자
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셨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남은 인
생을 건설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요 16:33). 이
젠 그 기쁨의 비밀을 전할 때이다. 주님의 종인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우리의 선교
를 통해, 주님의 전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겠
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
람의 본분이라'(전 12:13).

이현애(집사, 3교구)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나는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음을 느끼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나
에게 닥치면 감사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게 주님께
감사할 것뿐인데 말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 친구들을 보내주신 것, 휴식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주신
것, 맛있는 밥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생각하지
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을 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이 조금밖에 없는 나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한계를 느낀다.

구원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이다. 구원은 지옥에 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에 가
게 해 주신 일이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
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
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감사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결
국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 감사해요!!

김혜영(중등 3부)

매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던 죄인

한 해가 훌쩍 저물어 벌써 11월이 다 지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매
장 감사한 것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심과 이로 인하여 기
쁨을 회복시켜 주심이다. 이를 감당기 위하여 온전한 회개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
시며 매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
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은 자신도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남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
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새 생명의 삶을 유지해
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십자가는 지지 않고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계몽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선교지에서는 환금 여장파도 갈아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 그들
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면 그동안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받은 상처
와 어려움이 위로받는 듯하여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다른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다. 그것은 금요집회에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찬
양대가 되어 '거룩한 성'과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일이다. 온 성도가 새 예루살렘
을 소망하며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찬
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나이다" 하며 은혜를 받는다. 어떤 시절 찬양대
에서 불러 보고 그저 음악이 좋아서 찬양하던 것과는 다르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하
늘나라로 가신 지난 8월, 기질상 우울증에 빠진 수밖에 없던 나를 붙잡아 주며 가장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준 찬송이다. 여리고 성의 거지 소경과 같이 보잘것없는 이방
인인 우리지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중환자이면서도
간병인에게 전도하던 그대로 다시는 아프도, 슬프도, 고통도, 전쟁도 없는 평강과 희
락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날이 임기
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
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
다"(벧후 3:12,13). 아멘.

박성남(전사, 13교구)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부르며 '오 거룩
한 밤'으로 주님의 오신 날을 찬양하며
가다리는 금요집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지를 새삼스럽게 고백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수
감사절 이후부터가 아니라 올해는
부활절이 지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찬양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에는 '히니 빌레?'라는 생각도 들었
지만, 주님은 세상의 틀에 박힌 저의
생각을 과감히 깨뜨리셨습니다. 거기에 크
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대형 트리도 장
식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해, 정말 한 날 작은 티끌보다 못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낮은 땅
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기를 기념하려 했던 저의 지
난 모습을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금요집회를 통해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크리스마스 찬양을 소리 높
여 부르며 낮은 구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의 일곱 번째 메시지로 전해졌던 '마리아'를 통해 또 한 번 저를 돌아보
았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처녀의 몸으로 임태한 그녀가 전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가 행하
실 모든 일을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담대함과 열정적인 헌신이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믿음 속에 깊이 간직하며 약속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계시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아멘!

황규리(집사, 17교구)

말씀으로 무장된!

허를 뚫고 지 뒤편은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사단의 방해와 영적 싸움으로 마음이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느꼈 수 있었습니니다. 여러 가지 낯설고 많은 악조건에서도 팀장님과 팀원들이 하나되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동안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 곳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저희를 그 곳까지 보내 주심에 감사하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정말 벅찬 가슴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광활한 대지와 끝없이 펼쳐진 길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 드렸습니다. 그 땅에 진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승민(집사, 1교구)

패나 복음적인 척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강도 있는 **훈연이** 2월말부터 7월까지 계속 되었다. 주님 앞에서 받은 훈연이었다. 우리들의 영성은 말씀을 통하여 부처지기도 하였고, 차곡차곡 쌓여가기도 하였다. 모든 팀원들의 마음이 십자가만 가지고 선교를 가는 것에 모아져 갔다. 한국 생명력에 기록되는 선교를 소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훈연을 통해서 나는 패나 복음적인 척하였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만든 나만의 틀을 깨어 버리지, 이 땅에서의 규제와 방편에 대하여 분석하며 논하였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뵈었다. 복잡하게 여길 것도 없다. 말씀에서 들려주는 바울사도의 선교의 길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복음적인 선교팀이 가야할 길이 아니겠는가?

약 7시간을 달려가 숙소에서 짐을 풀었다. 그 곳의 영혼들만 보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였다. 주님께 사역의 모든 것을 의지하였다. 돈을 달라며 복음을 거부하던 영혼들이 안타까웠다. 거의 듣지 못하는 할머니, 한쪽 팔을 쓰지 못하시던 할아버지, 외진 곳에 사는 염마와 아이들, 외국인들을 처음 보았기에 웅얼 웅얼하던 어린아들, 조금이라도 더 선교를 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길에 예정에 없던 중간지점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였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원근(인수집사, 11교구)

빛 바랜 성경책을 쥐고 있던 여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를 재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팀장과 8명의 대원이 선교지 농촌 마을에서 오전, 오후 2차례씩 매일 4차례에 걸쳐 30여 개의 마을에서 전도 사역을 하였다. 한 마을에서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 중 한 여인의 집에서는 '뒤주'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성경책을 볼 수 있었다. 빛 바랜 성경책을 쥐고 있는 그 여인은 마치 로마의 지하 교회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 교인을 보는 듯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들이 모여 몰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였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한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다.

마을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다. 비록 적은 무리였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농촌의 가을 수확이 한창인 들로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쳤다. 이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할 때 그들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결점 투성이었던 우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우리들이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기에 그 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이 활짝 꽃피길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김기훈(인수집사, 14교구)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진 나에게 내 손에 남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희망이 사단의 세력으로 몰려왔다. 진정 내 울타리에는 소울들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나는 허박국의 고백을 지는 못했다. 수년 간의 교회 봉사도, 누구에게 뒤질새라 여기 저기에서 오랜 시간 선한 일을 했던 흔적들조차 내 손바닥에서 재가 되어 버린 형상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재만 남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내게 금요일의 시간에 성탄 찬송을 부르시며 스즈카도 말씀하신 위임 목사님의 한 마디가 내게 답이 되었다. "여기를 부르실 때는 선교,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며 부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위임 목사님께서 매우 기쁜 모습으로 지휘를 하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러다!" 날들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감동했던 내게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었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 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 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둬나가 하고, 영생하게 하시니" 성탄 찬송 속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깨닫는 영안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래!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재가 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영적 생명을 전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주님께 아무 것도 드릴 것이 없어 과거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며, 돌이켜 주님을 향하곤 하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간구할 뿐이다. 한 가지 내가 확인하는 것은 "내 몸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고 절그릇 같은 내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365일이 성탄의 복음이고, 365일이 부활의 복음이다. 대가불리 광인이며,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내게 하나님이나 친히 성육신하시어 딸 구유에 나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성탄의 찬송과 고백을 하게 하신다.

정인선(집사,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 새 가 곡 을 연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76	김춘식	14	사랑부	최영희(19)
2477	공기성	2	장년2부	진학래(18)
2478	박일주	4	장년2부	한만교(18)
2479	박병오	19	청년1부	함화자(9)
2480	은혜진	1	청년1부	박경희(11)
2481	육오승	19	청년1부	
2482	임상희	19	청년1부	김희술(11)
2483	김명수	1	장년1부	심재홍(15)
2484	배한숙	4	청년2부	장 훈(1)
2485	김 선	19	청년1부	김진호(19)
2486	김진성	2	청년2부	김명철(19)
2487	화	1	외선부	

※ 찬양교회의 한 거룩이 되기를 위하여는 본당 25호 새가곡 등록필요 오시기 바랍니다. ※

